

사진작가 이흥재 초대 작품전

전주 기린미술관, 개관 5주년 기념 5월 29일까지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진작가 이흥재 정음 미술관 관장을 초대하여 개관5주년 기념 작품전을 가진다.

이번 이흥재 작가는 변형된 산수화 28점이 새롭게 해질녘 또는 보름달 아래서 공간을 채우는 청색 어둠을 앵글에 담아서 서정시처럼 쓸쓸한 맛을 돋운다.

밤이 되면 풍경속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동시에 멎어떨어선 본연의 색을 잃어 버린다. 작가는 이 순간을 찰카자자와 기술기술한 한지에 인화한다.

청색 어둠과 검정 어둠만이 남은 작품. 그



사진작가 이흥재 작가 작품.

앞에 선 우리의 시각은 자신감을 잃지만 상

상력은 풍부해진다. 어둠이 지닌 마법같은 힘이다. 작가는 작가가 설정한 청색이라는 이상적인 색의 구현을 위하여 끝없이 영도에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의 흔적들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오랜 세월 발품을 팔아가며 산아를 헤메는 고난의 발걸음을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이 둘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혼합물인 것이다.

이흥재 작가는 전 전북도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음미술관 명예관장, 무성서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작가는 14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많은 사진전을 내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당북초등학교에서는 지난 3월 26일 비대면 영상대회로 치러진 제9회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당북초,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단체부 대상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 '쾌지나칭칭나네' 곡으로 수상

당북초등학교(교장 문홍운)에서는 지난 3월 26일 비대면 영상대회로 치러진 제9회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성인팀 포함 총 9개의 팀이 참가.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은 '쾌지나칭칭나네' 곡으로 수상했다.

단체부문의 경우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대

회를 진행했다.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은 2위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홍운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 벽골제 토목공학적 가치발굴 위한 워크숍 개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지난 3월 30일 김제 벽골제의 토목공학적 가치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김제 벽골제의 발굴 및 학술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근대 토목연구자가 읽어내는 고대 토목기술의 가치를 정리하는 자리로 김제 벽골제라는 복합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밝히는 첫 번째 분과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벽골제 축조에 활용된 측량기법 ▲성(城)과 제방(堤防)에 사용된 부업공법의 기능 차이 ▲제방 축조재료인 대규모 점토와 대형석재의 조달 ▲산간지형이 아닌 평야지역에 2.5km에 달하는 직선제방을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의 가치 등으로 진행했다.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토목분야 이외 자연과학·기후학·경제학·역사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벽골제 가치규명을 위한 위



크삼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향토박물관,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공모 선정

남원향토박물관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1차 서류심사, 2차 종합심사(PT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남원향토박물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박물관 시대의

초발을 내딛게 됐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시콘텐츠 제작, 전시안내 시스템 개발 등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능형 박물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카이브 구축이 테마로 추진 될 예

정이다.

또한 올해 2억원을 투입, 남원의 역사문화 유산 아카이브 작업과 대형 디지털 터치스크린을 활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테마파크 내 위치한 남원향토박물관에 스마트 박물관구축을 계기로 첨단 문화기반시설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탄소년단, 2년 연속 그래미상 불발... 도자켓·시저 수상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수상이 불발됐다.

방탄소년단은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글로벌 히트곡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올해 해당 부문의 트로피는 도자 켓&시저의

'키스 미 모어(KISS ME MORE)'에게 돌아갔다. 이 곡은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곡이다. 방탄소년단 '버터', 레이디 가가&토니 베넷 '아이 갓 어 킷 아웃 오브 유', 콜드 플레이의 '하이어 파워', 저스틴 비버·베니 블란코 '롤리'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따돌린 이유다.

미국 대중문화지 별치는 앞서 이번 그래미 예측 기사에서 2020년 '체이 소'로 디스크의 부활을 알린 도자 켓이 작년 그래미에서 상을

받지 못했으며, 잘 만들어진 히트곡 '키스 미 모어'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에서 고배를 마셨다. 작년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디지털 싱글 '다이내마이트(Dynamite)'로 한국 대중 음악 가수 최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이 불발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그래미 수상 여부와 별개로 이 팀이 계속 새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버터' 무대로 호평을 들었다. /뉴시스

춘향국악대전 참가자·청중평가단 모집

11~25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신청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남원지부, 민속국악진흥회, 춘향국악대전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의 경연 참가자 신청과 함께 판소리 명창부 청중평가단들을 모집한다.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춘향문화예술회관과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5개분야 13개종목으로 진행된다.

대회종목은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 학생부), ▲기악 관악(일반부, 학생부), ▲기악 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부문이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는 3,000만원의 상금과 대통령상, 무용, 민요,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일반부 대상수상자들은 종합결선을 거쳐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학생부 대상 수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판소리 명창부 청중평가단은 20명을 모집하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외에 만 20세 이상 4년제 국악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참가자 및 청중평가단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우편, 방문, e-mail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춘향제 홈페이지(www.chunhyang.org)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제49회춘향국악대전준비위원회(063-626-8001)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